

‘보릿고개’ 조선업, 올 수주 훈풍에 2년후 장밋빛 기대

현대중·삼성중·대우조선해양
매출 위축·영업실적 악화 지속

상반기 수주량 글로벌 1위 탈환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 반등 전망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은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2분기 실적악화 속에 후반기까지 인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수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년 뒤에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조3257억원, 영업이익 2294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32.7%, 65.5% 감소하면서 실적 악화를 벗어나진 못했다. 당기순이익도 83.6% 감소한 2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강재가격 인상과 인건비 증

가 등 원가상승 요인과 선박가격 정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선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에 휩싸인 가운데 실적 면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쟁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각각 1757억원과 100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된 데다 희망퇴직에 따

른 위로금 661억원이 반영됐으며 공사손실충당금 역시 2331억원으로 1분기보다 많아졌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시추선 관련 손실, 환입 등으로 390억원의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분기(478억원)보다 적자폭이 증가했다.

여기에 철강업계가 조선용 후판 가격을 올 하반기부터 인상해 조선업계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반

기별로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인상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체와 올 하반기 후판 가격을 1톤당 5만~7만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판 가격은 1톤당 60만원대 초반에서 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후판은 배를 건조할 때 주로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선박 제조원가의 15~20%를 차지해 조선업계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다만 국내 조선 빅3가 실적 악화 속에서 반등을 위해 수주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수주 1위를 재탈환했다.

영국 조선해양조사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234만CGT(441척) 중 한국이 496만CGT(115척) 40%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439만(203척)CGT, 총 36%를 따내 3년 만에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줬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올해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6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38만CGT(63척)로 전달 139만CGT(54척)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상반기 누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748만CGT, 2017년 1131만CGT, 2018년 1234만CGT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가 2년 뒤부터 핑크빛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계의 실적 악화는 지난 2016년까지 이어진 수주 부진에서 비롯됐다. 선박을 수주하면 2년여간 설계를 한 뒤 조선소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16년 수주 부진 여파로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올해부터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릿고개’를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	◇◇◇	전세계 (한국제외)	0000.00.00	제품 출시 후 00년	000	00	임상2상
○○○	◇◇◇	미국	0000.00.00	0000.00.00	000	00	임상1상
○○○	◇◇◇	중국	0000.00.00	종료기간 없음	000	00	임상3상
합계					0,000	000	

*외화금액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환율로 환산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강화된다

신약 실패·연구개발비 내역 등
투자위험 관한 내역 상세 기재
3분기 사업 보고서부터 적용

오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제약과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할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약·바이오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증했지만 이들 기업의 중요 정보나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먼저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라이선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들 간 중요 정보 파악과 비교가 쉽도록 기재항목을 명시한 서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신약 등 연구개발실적은 기재방식을 정형화한다. 진행 총괄표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다음 각 품목별로 진행경과와 경쟁제품, 시장규모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이 끝난 신약에 대해서도 현재 유통계약과 맺고 있는지, 판매가 중단됐는지 등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그간 임상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능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인력은 구성, 특징 등은 물론 주요경력

과 연구실적 등도 기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회계처리 방법을 공시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개발비)과 판관비, 제조경비와 함께 회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정부보조금 금액도 명시한다.

중요계약은라이센스아웃, 라이선스인 등 종류별로 구분해 금액과 계약조건, 회계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 중 ‘II. 사업의 내용’에서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및 ‘10. 연구개발활동’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은 10%에 불과 ▲핵심 연구인력 및 그간의 연구실적을 확인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및 결과발표(논문, 학회) 여부 확인 ▲타사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확인 등을 챙겨봐야 한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라이선스아웃은 ▲총 계약금액을 모두 수취할 가능성은 낮음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Upfront payment) 비율 확인 ▲라이선스아웃 계약상 대기업 확인 등을 유의해야 하며, 라이선스 또는 신약기업인수는 ▲신약의 임상시험 단계 ▲이미 지급한 금액은 신약 실패 시에도 반환받기 어려움 ▲계약금액(또는 인수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후속 출시자는 시장 침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신규진입 기업들의 증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1위 탈환한 롯데케미칼, 하반기 설비투자 ‘집중’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익 1.36조원
LG화학 제치고 업계 1위 되찾아
에틸렌공장 증설로 경쟁력 강화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이익으로 경쟁사인 LG화학을 따돌리고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을 비롯한 범용제품 판매가 급증하며 영업이익 상승세를 이어간 덕분이다.

롯데케미칼은 올 하반기에도 집중 사업 분야인 ‘에틸렌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까지 여수에 위치한 에틸렌 공장을 약 20만톤 규모로 증설한다.

15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6620억원, 2분기 7013억원을 각각 기록, 총 1조363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쟁사인 LG화학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3541억원으로, 롯데케미칼이 업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롯데케미칼은 범용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등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케미칼은 올 하반기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계획이다. 실

제 최근 롯데케미칼은 ‘2017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적시적소의 투자결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생산운영 지속을 특히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의 대표적인 과제는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수 에틸렌 공장 증설 프로젝트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해부터 총 2530억원을 공장 증설에 투입, 올해 말까지 20만톤 규모의 공장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공장 내 에틸렌 공장은 2000년에 1차, 2012년에 2차 증설을 진행해 올해 3차 증설을 거친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수 에틸렌 공장의 공장 생산능력은 초기 대비 약 350%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롯데케미칼 측은 설명했다.

여수 공장과 대산공장까지 포함하면

롯데케미칼의 국내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230만톤으로 확대된다.

해외사업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고 있는 ‘에탄크래커 및 에틸렌글리콜’ 공장이 관심사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로는 최초로 2016년 6월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에탄크래커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2월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했고 올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을 포함해 우즈베크 공장, 말레이시아 타이탄 공장, 미국 에탄크래커 공장 등 해외 생산력까지 더하면 롯데케미칼은 총 45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국내 1위, 글로벌 7위 규모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금감원, ‘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모형’ 선보여

ADB 워크숍에서 STARS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내 감독 및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워크숍에서 ‘전 금융권역 대상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미나에 이어 국제기구를 통해

금감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설명하는 두 번째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연효과 추정 방법론’을 추가해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악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부실로 여러 권역의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거래

차주 중 33.7%가 비은행을 동시에 거래 중인 다중채무자다.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이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대출 부실로 이어져 은행은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금감원은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모형의 글로벌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